

서 면 질 문 서

김 택 호 의 원

안녕하십니까?

김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 견제적 기능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인사는 가장 기본이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적기적소에 적임자, 희망자를 등용해야
시정이 바로 갈수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인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조례 심사 때 구미시 행정 기구
및 직제 및 정원 개편시 재개편을 약속 받았고

이번 감사에도 내년 3월말까지 재 개편 확약을 받았는데
구미시 행정의 기구 조정 하나 제대로 못해 의회에서
대안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러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조사 한 바로는 의회직제는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이 있어야 직제 구조가 맞고

업무 효율이 제대로 되며 의회 전문위원직 행정5·6급도
개정 전과 같이 복수로 환원 시켜야 된다고 사료되며

또 의안담당 6급도 중요성을 감안 별정6급으로 복수로
되어야 하며

산업건설전문위원직은 형평성에 맞게

5급으로 직급이 상향 되어야 되며
본청의 보도 담당직도 시장님의 지시대로
행정직과 별정직이
복수로 반드시 이번에 개정 되어야 되며
DJ정부의 실패작인 읍면 기능 전환 팀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정보통신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자치경영 지방분권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전국1위 오명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며

투자통상과도 우리시가 국가의 중요한 수출공단임을
감안하며 투자통상분야 역할은 너무나 중요함을
본의원이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IT쪽에서 거대공룡 SONY가 무한경쟁 세계시장에서
5년내 밀려난다는 분석이
이번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필립스본사

방문시 미래분석 전망을 보고
과연 우리공단도 5년후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되어 제안을 하며
그래서 지금 파견인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투자유치팀을 봐도 파전체에 직위 공모제를 시행
공단을 살릴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그래야
미분양 4공단이 조속분양될 수 있고
공동화 직전 구미공단을 살릴 수 있는
전문별정직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복지과는 7만 근로자가 200억불 수출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노사 문제에 노동전문가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노사문제인데
이점을 감안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복지회관의 경우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를
통합해야 하며
실제로 교육훈련과장이 투자통상과에 투자유치팀장을 맞아

파견근무하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또한 IT, BT 등을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 디지털구미에
결맞게 전문인력이 하루속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직제도 행정5급이나 전기5급이 맞다고 보며
예술회관은 공연에 조명과 음향이 중요하며

현재 시직원중에는 예술회관 근무시 예술회관 운영과
무대예술과 조명 음향 등에 6개월간 국비 및 시비로 미국
연수를 받은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고급인력을
활용해야 되며 이것이 큰인력 손실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의 수도과장직은 토목직과 전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리는 전기직이 아니라
기계직이 맞다고 사료되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자리는 6급담당으로 환원시켜도
전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미를 아끼시는 김관용시장님
구미를 효율의 도시로 경쟁력의 도시로
구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란 잘아시다시피

인간의 정주를 기초로 한 공동체적집단, 즉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설계하고 사물을 생각하며

각 지역에 잠재해 있는 가치를 재인식, 재평가 하려는 사고방식이 전제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예산의 전 과정에 투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은 소득의 재분배, 재원의 배분, 지역경제안정등 주요한 기능이 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간담회등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제도” 를 활성화 하여 투명성이 확대 되어야 하나

주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고 편성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비민주적 형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형과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시켜 왔으며,

특히 일부 소수에 의해 예산이 좌지우지되어 선심성, 낭비성으로 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방법이 과감히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인구, 면적, 경제활동, 지역개발 문화.복지지수, 사업의 지역간, 부문간의 형평성,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등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 선택되도록

예산편성프로그램의 개발용의가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